

---

# 양지리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목관묘 축조양상과 특징

---

김민철  
국립김해박물관

---

## | 목차 |

- I. 머리말
- II. 원삼국시대 목관묘 연구 概況
- III. 2호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특징
- IV.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 1) 1호 목관묘 구성요소의 특징
  - 2) 유적 내 공간배치 정형-독립묘는 존재했는가?
- V. 맺음말

## I. 머리말

목관묘는 인류가 사용해온 여러 형태의 묘제 중 가장 보편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의 괴리를 뛰어 넘어 凡用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고고학의 연구범주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구조와 부속시설의 변화를 동반한다. 선사시대를 포함한 上古史 연구 고고학 자료로서 목관묘는 그 木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매장주체부의 파악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런 탓에 막연히 토광묘라 지칭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경주 조양동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목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 창원 다호리유적 등의 발굴이 다수 이어지면서 그 구조와 축조양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馬韓·辰韓·弁韓이 태동하고 발전하기인 초기철기~원삼국시대는 단편적인 문헌 사료로 말미암아 그간 고고학적 분석과 해석이 당해시기 역사와 사회복원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거관련 자료가 비교적 영성한 가운데 화려한 금속유물과 일괄출토 정보를 제공하는 목관묘(군)과 그 출토 유물에 대한 분석이 단연 관련 연구의 대세를 이끌어 왔다.

그간 경산권역에서 조사·보고된 목관묘 자료 상황은 영남지방 내 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임당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 정치체의 통시적 동향, 읍락의 존재 양태, 나아가 국가형성과정과 사회복합도의 진전에 관한 논의까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고산, 남천, 진량, 하양, 그리고 금호강 북안의 안심지구까지 권역 내 여러 지점에서도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처럼 경산지역은 목관묘 단계 진한 사회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탁월하다.

최근 하양읍 양지리 유적에서 걸출한 후장묘가 확인되어 많은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경산지역 목관묘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될 또 하나의 자료가 더해졌다. 특히, 한반도 중남부 지역 특유의 후퇴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훌륭한 편이라 무덤의 구조와 축조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양지리유적 목관묘의 구조와 축조양상의 특징 파악을 통해 경산권역은 물론 진·변한 지역에 알려진 목관묘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우선, 그간 영남지방 목관묘 관련 연구를 대략적으로 개관하고, 양지리 유적 1, 2호 목관묘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도면·도판, 원고를 분석·검토해가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목관묘 현황과 축조양상에 대한 일반론적인 記述을 가급적 피하는 동시에 각 요소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또 그에 관한 새로운 지견을 더해 경산지역 목관묘의 축조양상과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한편, 논의 전개의 편의상 주된 분석의 대상인 양지리유적 1, 2호묘에 대한 절대연대관은 다음과 같은 틀에 준거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영남지방 목관묘 단계 연대 결정에 있어 중요한 표지적 유구 중 하나인 경주 조양동 5호묘를 서기전 2세기말로 소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필자의 전고(김민철 2019)에 따라 그 이전 단계의 대

구 월성동 목관묘군, 울산 교동리 1호묘 등 일부 유구들은 서기전 2세기 중엽 이전으로, 창원 다호리 1호묘는 서기전 1세기 전엽, 경주 조양동 38호묘를 서기전 1세기 중엽, 경주 사라리 130호묘를 서기 1세기 후엽으로 본다. 이 틀에 준거하여 양지리 1호묘는 서기전 1세기 후엽, 2호 적석목관묘는 서기전 2세기 말의 연대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 II. 원삼국시대 목관묘 연구 概況

원삼국시대 목관묘에 대한 연구는 영남지방 자료가 중심이 된다. 영남지방 이외의 한강유역이나 영동지방, 호서·호남지방의 경우 서기전 1세기대 이후 1~2세기대의 주된 묘제가 무엇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옹관묘나 토광묘 등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서기전 3~2세기대의 자료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의 이러한 편중과 제약적인 특징 까닭에 원삼국시대 목관묘에 관한 연구는 영남지역 목관묘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 목관묘의 출현연대와 변천과정에 관해 기왕의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에서 최초의 목관묘가 출현하는 시점을 서기전 2세기末~1세기初 즈음으로 보는 입장<sup>1)</sup>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구 팔달동유적의 적석목관묘들이 서남부지역으로 영향을 받아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영남지방에 있어서의 출현단계의 목관묘로 인식, 점차 적석의 요소가 없어지는 변천을 겪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영남지방에서 나타나는 목관묘의 계보는 시간적으로 앞서 나타나는 호서·호남지방의 소위 ‘초기세형동검묘’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sup>2)</sup>. 그리고 이 시기 목관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형식학적 변화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며, 목관묘가 등장하는 시점을 전후한 무렵부터 묘광의 깊이가 점차 얕아져 가는 변화와 관련해서 소위 ‘木棺系 木槨墓’의 등장<sup>3)</sup> 정도만이 그 구조적 변화로서 인식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목관묘 구조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위와 같이 비교적 논의가 소략했던데 비해 목관형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통나무관과 판재관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차후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논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므로 장황하지만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金洙南, 1998, 「慶山 林堂遺蹟 木棺墓의 性格에 대하여」,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제3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文化」,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영문연조사연구발표회』9회.

朴升圭, 2000, 「大邱·慶北地方의 木棺墓 資料紹介」,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高久健二, 2000, 「樂浪郡と弁·辰韓の墓制」,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宋桂鉉, 2000, 「辰·弁韓文化의 形成과 變遷」,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2)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第5輯, 韓國古代史學會.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pp.286~289, 學研文化社.

3) 安在皓, 1995, 「慶州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2, pp.121~134,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이재홍, 2001, 「목관계목관묘의 등장과 배경」, 『嶺南文化財研究』14, (財)嶺南文化財研究院.

통나무관과 판재관이라는 목관형태 차이는 그간 일반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이래 그 사용 주체가 주민계통이 다른 것으로 추정하여 재지민 혹은 새로이 渡來한 유이민들이 사용한 관으로 간주해 왔다<sup>4)</sup>. 이러한 추정은 다호리 1호묘 통나무관의 계통을 따지면서 이전 시기의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통나무관이 확인됨을 근거로 하고, 판재관은 한반도 서북지방의 묘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 대구지역의 삼한소국형성과정의 일면을 재지계 통나무관과 외래계 판재관의 時空的 분포양상을 바탕을 추찰한 연구<sup>5)</sup>도 발표되었다.

통나무관=재지계, 판재관=외래계라는 목관묘 계통에 관한 가정은 영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유적이나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유적의 시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목관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유효한 전제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김천 문당동 유적의 목관묘를 염두해 두면 그러한 가정은 再考의 필요성이 있다. 소위 변형비파형동검과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에서 출토된 것과 동단계로 파악되는 흑도장경호, 그리고 마제석검(석창?) 등이 공반되어 화순 대곡리유적의 목관묘 보다 이른 것이 확실한 문당동유적의 목관묘는 판재식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즉, 통나무관의 사용보다 선행하는 판재관의 존재가 뚜렷해진 것이다. 목관의 형태에 관한 논의는 중국적으로 각 단위 지역에서 유이민과 재지사회의 융합·통합과정을 특히, 영남지방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려는데 이용되었다고 본다.

한편, 崔鍾圭는 목관묘의 출토유물과 부장양상의 검토를 통해 목관묘 단계에서의 ‘禮制’를 검토한 바 있다<sup>6)</sup>. 그는 조선시대 목관묘의 검토를 토대로 葬地에서 이른바 埋葬三祭가 거행된 것으로 보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에서도 유사한 儀禮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儒敎式 喪葬禮가 거행되었을 조선시대 자료의 검토를 초기철기~원삼국시대까지 과연 그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목관묘의 유물부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이러한 검토는 목관묘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연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은 구조나 계통의 문제라기 보다는 木棺墓群의 등장 의미<sup>7)</sup>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시기 단독묘 혹은 소수군집묘의 형태로 조성되던 목관묘가 서기전 100년경을 전후한 시기부터 떼를 지어 누세대로적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는데—물론, 이후 연속적으로 자료가 나타나는 辰·弁韓지역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삼한 소국정립의 증거로써 간주해 온 까닭에서 그러하다. 목관묘의 누세대로적인 조영을 삼한 소국들의 성립된 증거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취락고고학의 관점에서 이것이 취락의 장기적인 영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목관묘 이후의 분묘들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조영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만 대개는 이후 각 지역 단위의 중심 정치체가 성장하는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분묘가 조성되는 것을 볼 때 목관묘의 군

4)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考古學誌』1, p.52, 국립중앙박물관.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고대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嶺南考古學』, 26, p.103, 嶺南考古學會.  
이건우, 2009, 「茶戶里遺蹟 發掘의 意義」『考古學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紀念 特輯號, pp.8~11, 국립중앙박물관.  
權志瑛, 2010, 「영남지방 목관묘의 전개양상 검토」, 『考古廣場』, 부산고고학회.  
5) 李熙濬, 2000, 「前揭文」.  
6) 崔鍾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考古學探究』, 創刊號, 考古學探究會.  
7)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第十四輯, pp.28~29,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李在賢, 2003, 「弁·辰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pp.90~93,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집현상을 ‘소국’이라 할만한 지역정치체 성립의 증거로서는 충분히 수궁할 수 있다. 그리고 목관묘가 군집하는 고고학적 정형성의 이면에는 한반도 서북부나 서남부로부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유이민의 파동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이해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 Ⅲ. 2호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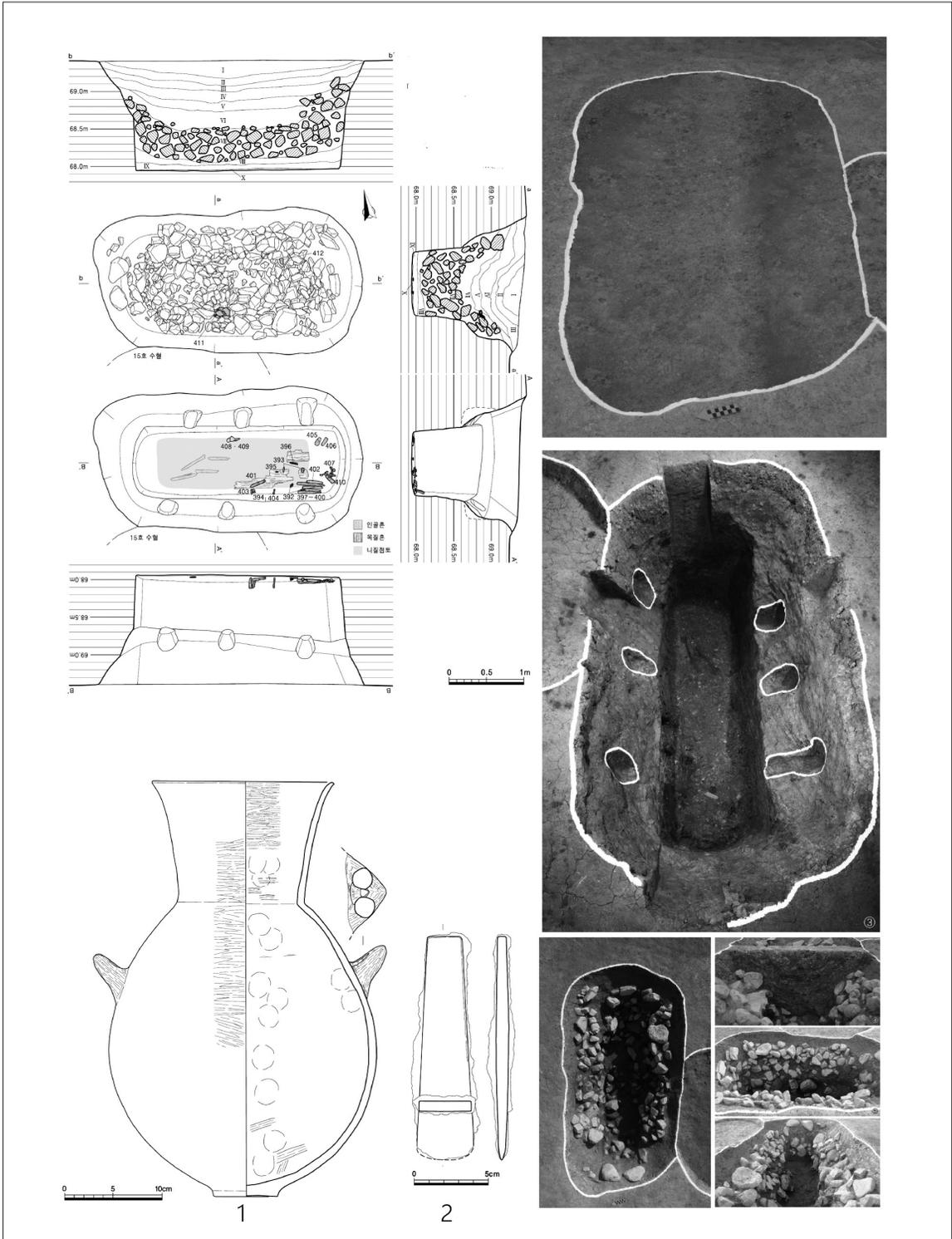
양지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모두 6기이다. 모두 유적의 동편 Ⅱ-⑤구역에서 확인되었다. 3~6호 목관묘는 2호 목관묘에 인접하여 축조되었고 비교적 규모가 작다. 출토유물도 없거나 토기 한 점이 발견되었다.

2호묘는 묘광 내 적석이 확인된 이른바 적석목관묘인데 목관 상부의 적석이 확실한 사례이다. 묘광 길이 353cm, 너비 182cm, 잔존깊이 144cm이다. 금호강유역에서 기왕에 알려진 목관묘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sup>8)</sup>를 감안해 본다면, 경산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목관묘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한다. 묘광은 이단 굴광의 구조인데 바닥에서 70cm 높이에 단이 지워져 있다. 단이 지는 이 위치에 굴착흔이 확인되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남장벽과 북장벽측 단에 각각 3개씩 3조의 구덩이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로서 보고자는 여기에 횡대를 거치하고 목개를 설치한 후 그 상부에 15~30cm 크기의 강돌을 적석한 구조로 추정하였다. 함몰된 적석부에서 흑색마연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판상철부가 각 1점씩 확인되어 목개를 설치하고 봉헌한 유물로 보인다. 목개 아래 안치한 목관은 204cm×64cm의 규모로 판재관이며, 충전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부퇴적 양상을 근거로 한 보고자의 이와 같은 구조 복원안은 대체로 적확하다고 보이며, 2호 무덤을 적석목관묘로 명확히 규정할 만하다.

한편,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목개 위에 안치한 흑색마연장경호와 판상철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 굴광의 단 위에 횡대를 걸치고 그 위에 목개를 놓고 돌을 쌓았는데 두 기물은 적석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양상으로 보건데 파수부호와 판상철부는 무덤 축조를 완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헌된 물품으로 목관 내부 혹은 그 주위에서 확인되는 유물들과 폐기의 동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적석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굴 당시 잔존한 묘광의 어깨선 아래의 레벨에서 확인되므로 봉토와는 관련이 없는 즉, 무덤 하부 구조의 일요소로 봐야 한다. 그것은 목개와 목관의 부식으로 발생한 현재 함몰 양상을 염두에 두고 원래의 구조를 추적해 볼 때 이단굴광의 턱 레벨에 위치한 목개 상부의 적석부가 묘광 어깨선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적석부는 묘광 어깨선 위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무덤 축조 당시 구지표에 형성되었을 어깨선의 높이가 현재 확인된 레벨보다는 어쨌든 더 상부에 위치했을 것임을 감안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양상은 적석과 공헌물인 토기, 철기가 봉토와는 관계없는 시설이자 유물이며 무덤 축조과정을 복원해 볼 때 양자는 애초에 무덤의 하부 구조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봉토 내부에 위치한

8) 금호강유역 일대 목관묘 규모 분석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지적하기 어려우며, 유물부장량과의 상호관계에서도 양자 간에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인지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신영애 2016:211).



〈도면 1〉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와 출토유물(1·2목개 상부 출토)

기물이라면, 축조 완료 이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에 행해진 의례 행위등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적석 내부에서 출토한 흑색마연장경호의 저부는 굽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무문토기 소성으로 확실히 와질토기 출현 이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판상철부는 평면 제형에 신부 두께가 1.1cm, 너비, 5.3cm, 길이 15cm 내외이다<sup>9)</sup>〈도면1-2〉.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판상철부의 형태 변천은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인부 폭 역시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지는 것으로 인식된다(金度憲 2004, 申東昭 2007, 류위남 2009). 즉, 양지리 2호 출토 품은 古式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경주 조양동 5호 출토품 역시 길이 14.7cm, 너비 5.5cm, 두께 1.5cm로 양지리 출토품과 규격이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2호 적석목관묘의 연대는 경주 조양동 5호와 병행하는 시기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절대연대는 서기전 2세기 말에 소급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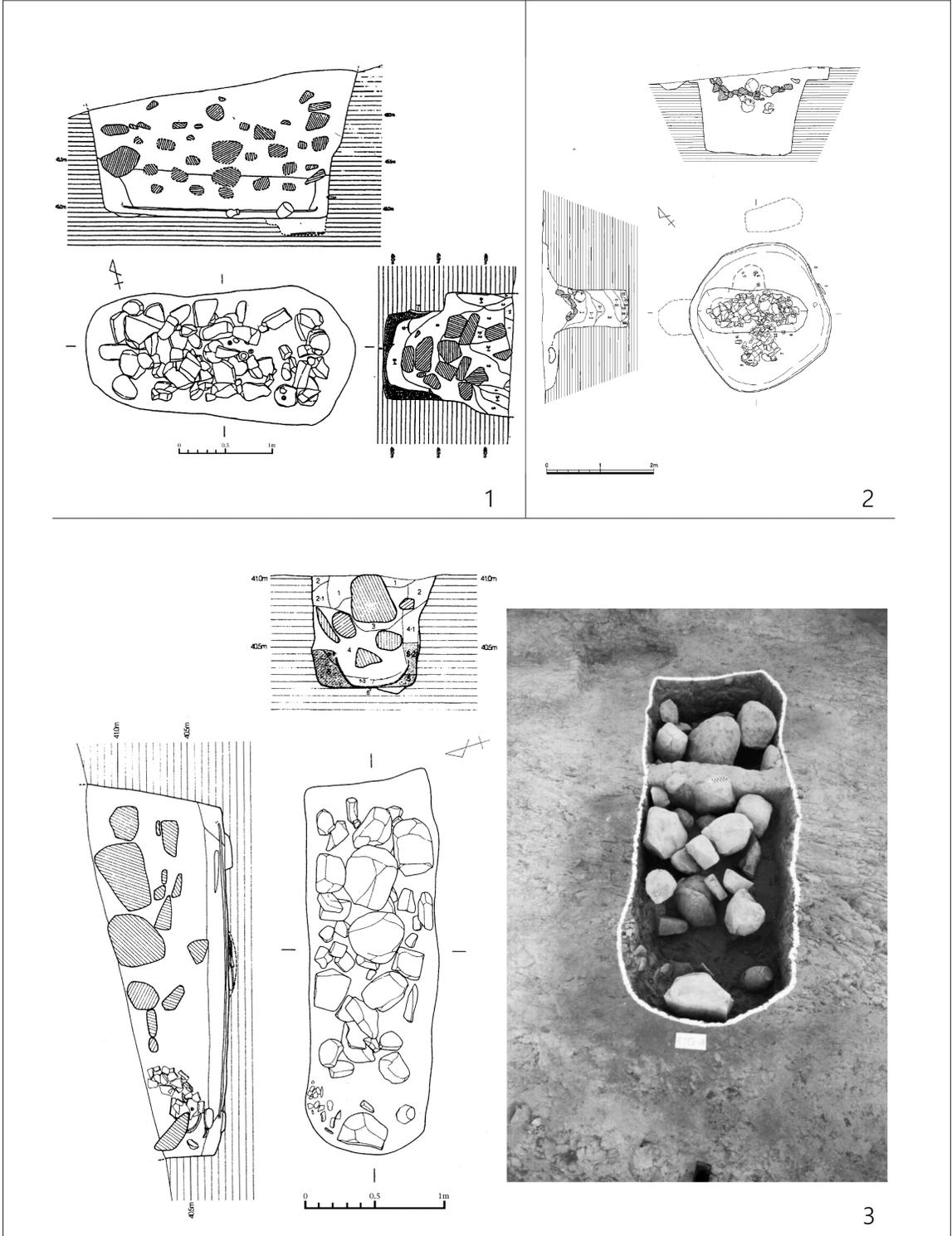
2호 적석목관묘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경산지역에서 그간 알려진 목관묘 자료에 대비해 보면 굉장히 돌출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서력기원 전후 약 300여년 동안의 시간폭에 해당하는 경산지역 목관묘 자료 약 300여기 가운데 목관 상부를 적석한 무덤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기실, 상부 적석 요소를 차치하고 경산지역 목관묘에서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돌의 존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일부 유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석재는 묘광과 목관 사이를 충전하는 역할로서 흙과 함께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그간 영남지방에서 적석목관묘로 익히 알려진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 경주 조양동 5호 등과 같은 상부 적석 요소가 명확한 자료는 경산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양지리 2호 무덤이 최초의 발견 사례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산지역에서 돌연 출현한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구조적 계보를 어떻게 考究해야 할 터이다. 적석목관묘는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등 한반도 서남부지방에도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만, 우선,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팔달동 유적, 경주 조양동 5호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

먼저,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는 102기의 목관묘·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적석목관묘로 보고된 것은 45호 등을 비롯하여 15여 기에 이른다. 이 무덤들 중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부적석이 확실해 보이는 45호, 90호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만 한다. 45호 무덤의 경우 보고자는 묘광을 굴착하고 목관을 안치한 후 묘광을 덮은 목개를 놓고 그 위에 할석 약 100여 개를 적석한 것으로 추정한다. 목관과 목개 사이는 충전하지 않고 비워놓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함몰토가 잔존하는 어깨선부터 급경사를 이루고 충전토와 함몰토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90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목관 상부에서 확인되는 함몰토와 석재는 묘광을 덮고 있던 목개 위의 적석과 봉토로 추정한다.

경주 조양동 5호묘는 이단굴광을 조성한 적석목관묘이다. 상단은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의 형태로 잔존 깊이 15cm 정도로 났다. 두 번째 굴광은 목관묘와 같은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되어 있다. 이 무덤의 구조에 대한 해석은 다소 의견이 분분한데 애초에 묘광 어깨선에 목개가 있었다고 추정됐지만, 정식 보고에서는 목관 상부를 황갈색토와 회(갈)색점토로 충전해 올리고 적석은 그 위에 한겹 정도 깔았으며, 목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정했다(국립경주박물관 2003:51). 유구 실측 도면상으로는 과연 그러한 수정된 설명이 일견 적확한 듯

9) 정식보고문의 유물 기술에 길이는 23.2cm이지만, 도면에 제시된 축척을 기준으로 본다면 잔존길이는 15cm 내외이다.



〈도면 2〉 영남지방 적석목관묘(1:팔달동 45호, 2:조양동 5호, 3:팔달동 90호)

하지만 이주현의 지적처럼 애초에 목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무문토기옹의 출토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이주현 2009:121). 도판을 참고하건대 상부 적석량은 하단 묘광의 범위를 한계정도 敷設한 양으로 보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묘광내 목관상부의 충전유무 역시 이 사례에서도 논란이 되어 구조 해석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쉽사리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 어떠한 효과적인 대응 담론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하기에 명확한 상부 적석시설의 존재만을 전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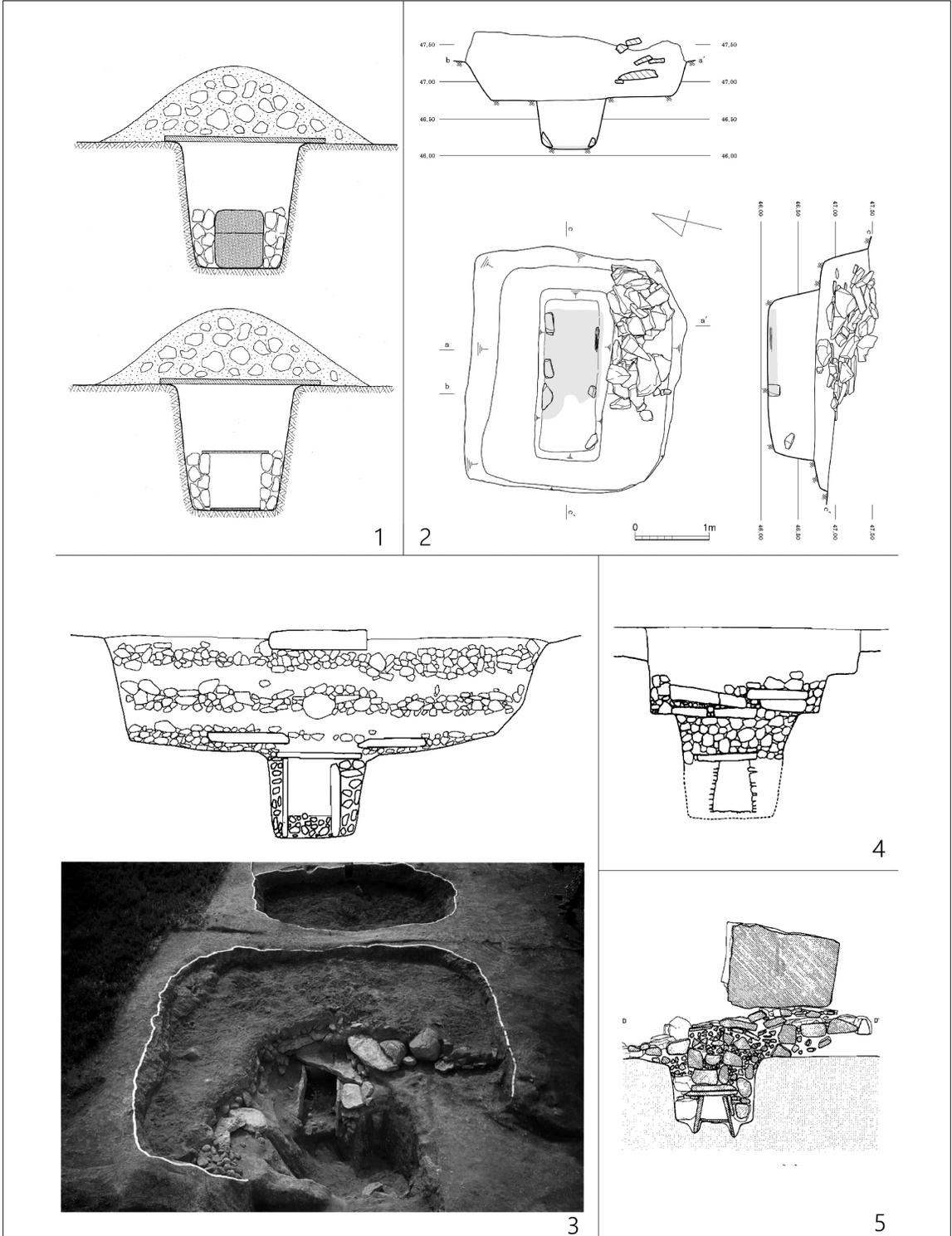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목관묘의 구조적 속성으로서 묘광 어깨선과 목관상부 사이의 공간에 관해서는 빈공간으로 판단하는 입장, 일부 채워진 경우로 보는 입장, 마지막으로 모두 채워져 있었다고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각 입장마다 구사는 저마다의 논리는 있으나 무덤 조성당시 구지표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치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관묘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U자상의 함몰 굴곡은 어떤식으로든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일정한 관점이 내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발굴 조사에서 무덤 조성 당시 구지표면을 파악할 수 있다면 논의의 간극은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하튼 팔달동과 조양동에서 발견된 적석목관묘의 축조양상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양지리 2호 적석목관묘를 살펴보면 적석목관묘의 범주로 분류되면서도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차이는 묘광을 덮는 목개의 위치이다. 팔달동의 적석목관묘들은 구지표에 굴착한 묘광의 어깨선 목개를 설치하고 상부 적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지리의 경우 묘광내 이단 굴착한 턱에 목개를 덮고 적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목개와 목관 사이의 공간이 비워졌었는가? 혹은 충전된 상태였는가? 하는데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 자체로 양지리 적석목관묘와의 구조적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후자의 경우도 상부 적석의 요소만으로 동시기 인접한 지역의 무덤과 비슷한 구조로 파악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양지리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묘광내 적석 시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다면 보성 동촌리, 창원 덕천리 등지의 대형 지석묘 하부구조와 유사한 점이 간취된다(도면3). 물론, 양자는 묘제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달리하는 터라 더 이상의 자세한 추적은 어렵지만, 무덤 구덩이 내부에 위치한 목개 위로 적석·충전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요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접한 자료에서 찾기 힘든 요소임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묘광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대형인 점 역시 주목할만 한데 금호강유역권에서 초현하는 (적석)목관묘들 중 길이 350cm 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애초에 묘광 내부에서부터 적석을 의도한 축조 프로세스가 작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김천 문당동, 칠곡 심천리, 대구 월성동 등 양지리 적석목관묘 축조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목관묘들이 존재한다. 그런 와중에도 팔달동이나 조양동 등 일부 목관묘 유적에서 적석목관묘를 시간적으로 앞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 시기 묘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잔흔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김용성 2016:30). 여하튼 앞 시기 무덤이 돌을 주된 재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목관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적석은 분명 재지 사회의 전통이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산지역에는 김해 대성동84호, 율하B-9호, 부산 두구동 임석 무덤, 기장 동백리 석곽묘와 같은 과도기적 양



〈도면 3〉 적석목관묘와 지석묘의 하부구조(1:초포리 2:대곡리 3:동촌리 4:덕천리 5:이금동)

상이 짙은 목관묘를 확인할 수 없다. 상기 무덤들이 ‘과도기적’이라 평가되는 것은 재지 전통이 짙게 남아 있는 묘제 속에서 신석 문물이 출토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장 동백리의 경우 수직으로 세운 석곽에 와 질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다. 영남지방 각 지역마다 보이는 이러한 상이한 양상은 지역별로 새로운 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이 크게 달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금호강유역권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목관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월성동 목관묘에서도 재지 분묘의 구조적 특징이 융합되어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다만, 칠곡분지 일대 팔달동, 학정동 유적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 사례가 찾아진다. 경산지역의 경우, 임당 구릉일대 중에서도 F지구와 조영 I B지구에서 확인된 목관묘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덤들에서도 재지적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임당구릉에 분포하는 목관묘 중에는 상부 積石을 적극 긍정할 만한 무덤을 찾아 볼 수 없다. 임당일대의 목관묘를 축조한 집단의 출자가 재지계와는 매우 단절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이 일대의 조사에서 지석묘나 주거지 등 재지 무문토기 사회의 흔적<sup>10)</sup>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IV. 1호 목관묘 축조양상의 특징과 경산지역 목관묘

1호 목관묘는 유적의 II-⑤구역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주위는 동시기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무덤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서북쪽으로 100m 가량 이격된 지점에 2호 적석목관묘와 3~6호 목관묘가 위치한다. 아래에서는 양지리유적 1호 목관묘의 발견을 계기로 쟁점이 될만한 목관묘 구성 요소들을 기존의 자료와 함께 재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면4>는 정식 조사보고서의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구조의 열개를 시각화 한 것이다.

##### 1. 1호 목관묘 구성요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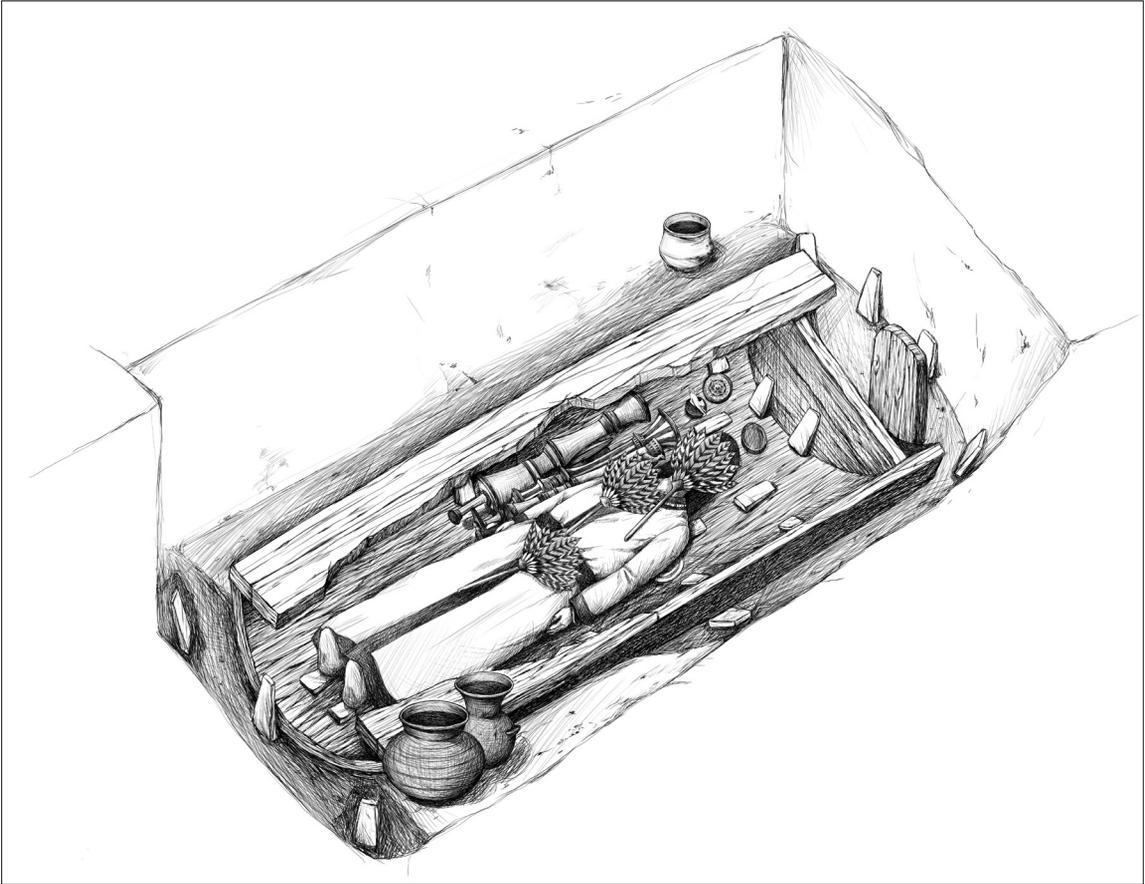
###### 1) 묘광 바닥과 요갱부

무덤 구덩이를 굴착하고 먼저 별도의 부장공간 만들었는데 요갱이 바로 그것이다. 피장자의 허리춤에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묘광의 모서리쪽에 굴착한 경우도 있다<sup>11)</sup>. 1호 무덤 하부에서도 요갱부가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칠초동모, 칠초철과<sup>12)</sup>, 철제 자귀 등을 부장했다. 묘광 모서리와 정지면에 판상철부를 깔거나 세워두고 주조 철부를 3열 배치했다. 바닥에 배치한 이 철기유물의 표면에 초본류 흔적이 확인되는 것에서 자리를 한 벌 깔

10) 임당환호(지구) 서쪽, 현 임당초등학교 북편에 면하여 대정동 유물산포지와 立石群이 알려져 있다(경산시·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2006). 대정동 마을 일부에서 선돌이 확인되었는데, 대구 진천동 입석 유적을 상기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대하리 일대에서 확인된 이른바 묘역식 지석묘와 같은 존재도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지석묘를 비롯한 전대의 무덤 역시 마찬가지이다. 옛 고산지구, 남산, 남천, 웅성, 안심지구 곳곳에서 적지 않은 재지의 무덤이 발견되는 반면, 임당구릉 일대에 보고된 사례는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임당구릉 일대가 추론하기 어려운 모종의 이유로 점유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된 사례가 없다.

11) 팔달동유적의 일부 유구처럼 묘광의 양 단벽에 치우쳐서 위치하는 것도 확인되므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棺下副葬坑(최병현 2018)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경산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피장자의 허리춤 부근에 위치하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요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정식보고서에는 銅戈로 보고되었으나, X선 투과사진에 나타나는 철제품의 특징, 형태로 미루어보아 鐵戈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민철 2020).



〈도면 4〉 양지리유적 1호 목관묘 축조양상 복원도(국립대구박물관 2020)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부장 양상을 일종의 시대로 파악하고 그 배치상의 정형을 토대로 권역별 특징을 논한 논의도 제시된 바 있다(장기명2018).

## 2) 목관 하부의 조성구와 피장자 안치

묘광 바닥과 요갱부의 조성단계까지는 그간 확인된 경산지역 목관묘 자료 전반을 놓고 묘아도 위에서 언급한 축조 프로세스상의 이견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목관이 묘광에 안치되는 전후 과정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고고자료를 통한 목관묘 축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은 사실 순전히 양지리 1호묘나 다호리 1호묘와 같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발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복원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개진될 수 있는 만큼 입론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묘광 바닥과 요갱부를 조성하고 기물을 공헌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구유형관 하부 시설을 설치하고 둥근 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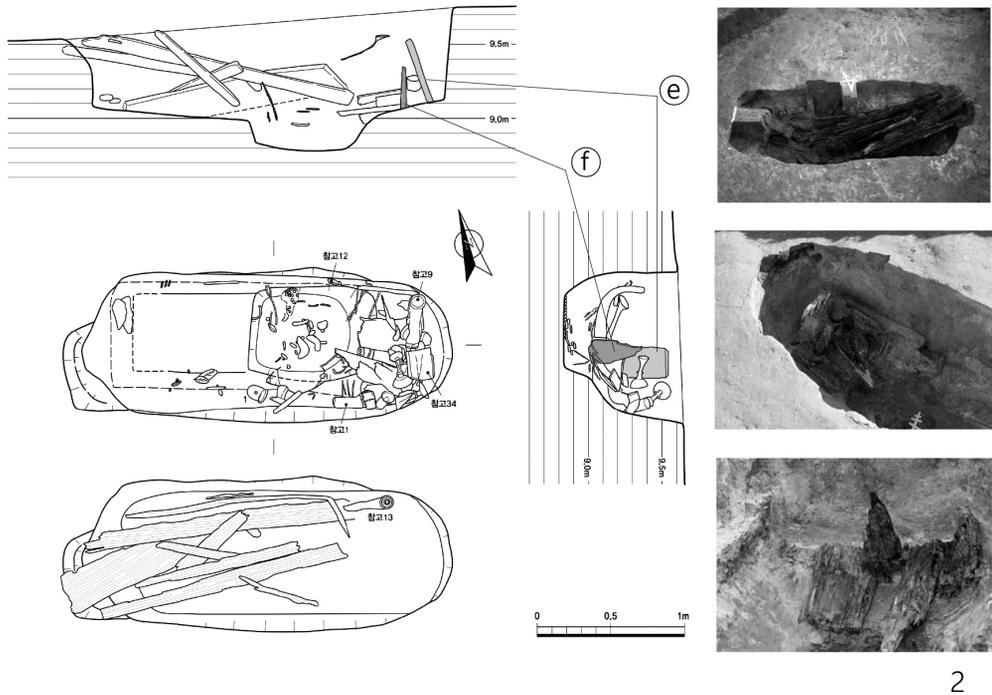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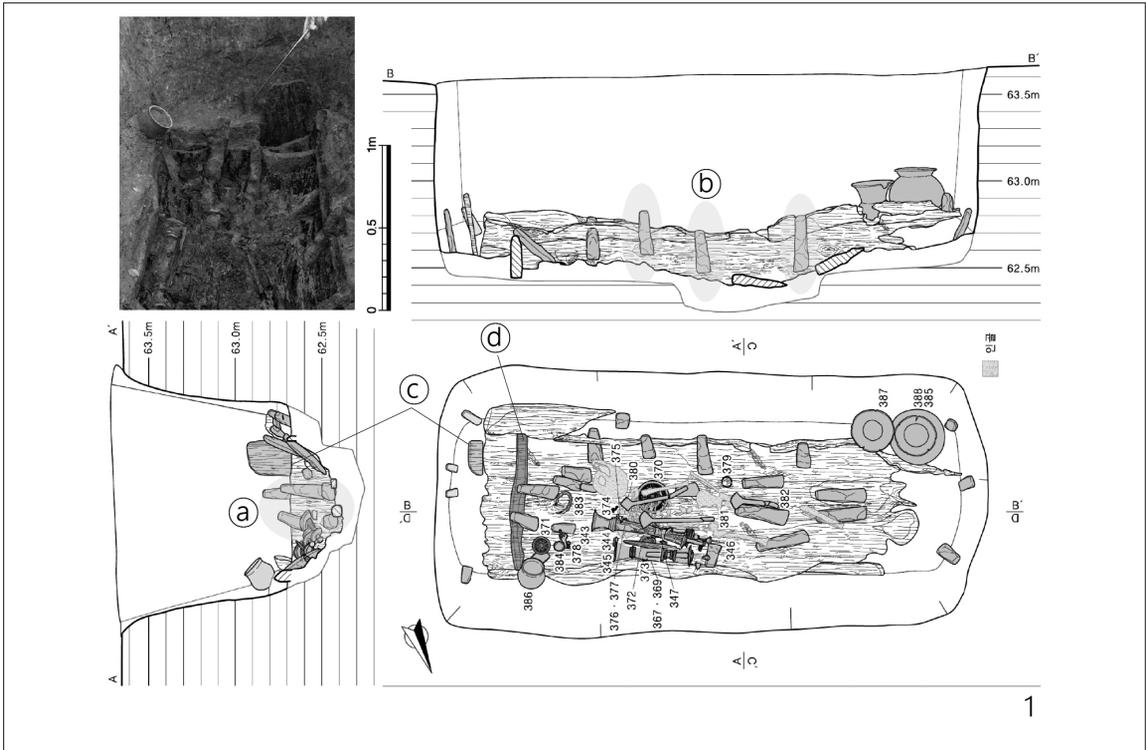
면을 고정하기 위해 사방에 30cm정도 높이로 층전토를 채운다. 목관 내부에도 여러 점의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고 측면에 세운다. 목관내부 바닥에 깔린 판상철부의 윗면에서 초본류가 확인됨에 따라 주검을 안치하기 전에도 깔개를 깐다. 이후 피장자를 안치하고 관내에서 확인되는 여러 기물들을 매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조사 보고문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양지리 1호 목관묘의 축조과정을 위와 같이 추정할 때 기왕에 제기된 복원안과 가장 먼저 異見이 갈리는 것은 원삼국시대 사용된 당시 목관이 운구용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다호리 1호의 경우 통나무관의 피장자 足部 쪽에 ‘ㄴ’자형 구멍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 구멍이 끈을 꿰어 끌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 추정한다(李健茂 2012:426). 즉, 주검과 공헌품을 매납한 상태에서 장지까지 끌고 온 것으로 상정하는데 목관의 무게가 상당한 점에서 미리 파 놓은 흠에 굵은 끈 따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목관에 애써 파놓은 흠의 기능을 적극 추론한 결과 그러한 프로세스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양지리 유적 보고자는 묘광 굴착에서 봉토의 조성까지 일련의 무덤 축조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축조의례가 무덤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 전제하면서 주검의 안치와 기물의 공헌은 구유형관의 하부구조가 묘광 내에 설치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김동숙 2020:730).

양자의 견해는 각기 나름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양지리 1호와 같이 목관과 부장유물의 출토맥락이 면밀하게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관 내부에는 다수의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거나 세웠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단벽 격벽에 2점, 남장벽에 4점, 그리고 북장벽에 3점<sup>13)</sup> 등 모두 9점의 판상철부가 세워져 있는 출토양상이 주목된다. 이 판상철부는 모두 날이 목관 바닥을 향하도록 기댄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도면5-㉓, ㉔). 만일 전자의 가설과 같이 殯을 행했던 모처에서 목관에 주검과 기타 기물을 안치하여 葬地까지 이동해 온 것으로 상정한다면 아무리 조심스레 운구하여도 노출된 상황과 같은 유물 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혹여 주검을 안치한 후 장지까지 운구한 후 판상철부를 비롯한 목관 내부에 공헌 물품들의 위치를 재정비했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와 같은 매장 프로세스는 다소 어색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한편, 전자의 가설에 출발점이 된 다호리 1호 목관묘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호리 1호 목관묘 내부에서도 판상철부가 10점 출토되었다. 유구 원고와 도면 및 도판에서는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판상철부의 출토 양상을 파악할 수 정보가 없지만 개별 유물 설명에서 조사 당시 출토양상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총 10개의 판상철부 중 1-38번, 1-39번은 각각 목관 내부의 남장벽과 북장벽 세워진 채로 출토되었다고 한다(국립중앙박물관 2012:38). 이러한 출토 양상은 그동안 별달리 주목하지 못했던 맥락인듯 싶는데 양지리 1호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됨으로써 판상철부를 목관 내부에 깔거나 네 벽에 기대에 세운 매납 방식이 존재했음이 명확해졌다. 목관 내부에 세워진 채 노출된 판상철부의 출토양상을 전제로 이러한 매납 방식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검과 부장품 안치 후 운구·하관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13) 북장벽측에는 2점이 세워져 있었으나 목관 바닥에서 확인된 1점(365번 유물)은 원래 북장벽측에 세워두었던 것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닥에 종방향으로 깔아 놓은 판상철부의 방향과는 다소 다른 점과 그 출토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고자의 판단처럼 원래는 북장벽에 세워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듯 싶다.



〈도면 5〉 목관묘 단벽 마감관련 내부구조와 부장유물(1:양지리 1호 2:다호리 15호)

낮아 보인다<sup>14)</sup>.

그렇다면, 후자의 가설이 현재로서는 구유형관의 하부 구성과 주검을 안치하고 기물을 매납하는 과정의 실상에 더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미리 설치’ 혹은 ‘놓은’ 관이 묘광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되게끔 하는 충전의 과정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미리 놓인 관’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목관과 묘광의 사이를 ‘충전’한 것인가? 혹은 목관의 안정적인 거치를 위해 미리 ‘棺床’을 조성했는가? 하는 쟁점이 잇따른다. 그에 관해서는 경산권역에서 확인되는 구유형관으로 파악된 목관묘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推察이 가능하다.

권역 내 모든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묘광과 목관 상호간의 폭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구유형 관 외면이 곡선을 띠고 있어 안치 후 충전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유형관 하부 구조에 맞도록 점토를 정지한 후 설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이 경우 정지한 점토층을 이른바 ‘棺床’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도면6). 김천 문당동 목관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설의 존재를 유추한 바 있다(崔鍾圭 2014:154)<sup>15)</sup>. 그리고 원삼국시대 무덤에 사용된 관은 거의 모두가 미리 놓인 관으로 상정하면서 들어 나르는 관(운구용관)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吉井秀夫 2011). 아울러, 시간적 간극은 존재하지만 삼국시대 목관 내부에 목관의 안정적 거치를 위해 조성한 점토관상의 흔적(金斗喆 2010; 李熙濬 2016) 및 더 나아가 공간적 괴리가 크지만 黑塚古墳에서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점토관상 역시 이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상기 관점에서 목관 하부구조 설치 이전에 조성된 棺床의 존재를 잘 엿볼 수 있는 실제 발굴자료는 신서동 목관묘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관묘는 주로 판재관을 사용하는 장기적 추세에서 적어도 구유형관은 소위 ‘미리 놓인 관’이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3) 二中隔壁의 存否

양지리 1호 목관묘 동단벽측 목관구조에 대해 보고자는 목관 막음용 판재와 칸막이용 판재를 놓아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추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묘광의 동쪽 끝에서 20cm 안쪽에 목관 막음용 판재를 세우고, 거기서 18cm 안쪽에 칸막이용 판재를 놓아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보았다. 즉, 목관의 동측은 내·외부 이중의 칸막이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추정을 ‘二中隔壁說’이라 잠정적으로 칭하고 그 존부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과 도판으로 이해하자면 피장자 머리맡에 이중의 격벽이 존재했던 셈인데 <도면5>의 ㉔와 ㉕가 보고자 판단한 바깥쪽과 안쪽 칸막이가 될 터이다. ㉕의 표면 전반에는 분명한 목질흔이 관찰되고 판상 절부가 여기에 기대어져 있는 것에서 목관의 동쪽을 막는 칸막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동쪽 묘광 끝 부위에 위치한 ㉔는 남쪽으로 치우쳐 남아있는데 높이 42cm, 너비 27cm 규모의 장방형 형태이며 이 판재의 樹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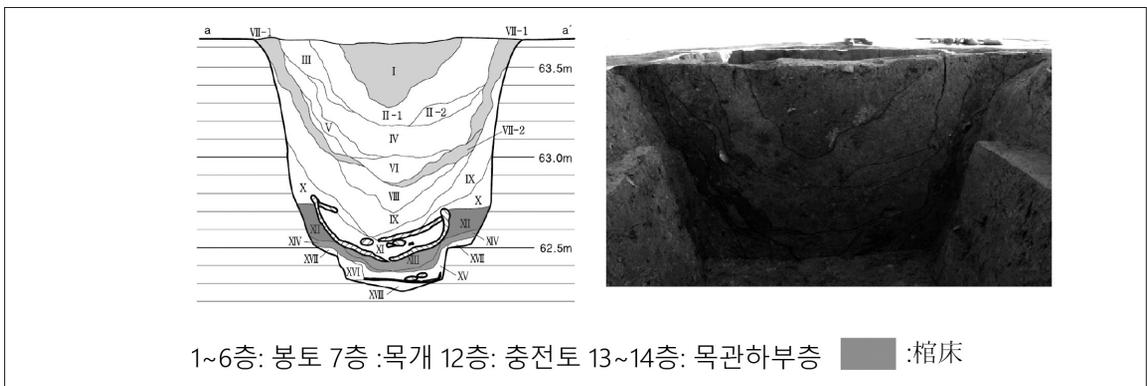
14)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석곽·석관 등의 묘제는 현지에서 조립한 매장시설에 바로 주검을 안치하는 반면, 목관묘부터는 - 물론, 아닌 경우도 일부 상정하고 있지만-주검을 목관에 넣어 장지로 운반하여 장례를 치르는 새로운 장법을 보이며, 이는 중국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본 견해가 있다(김용성 2016:17). 하지만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장지에서 목관에 주검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5) 발굴조사시 묘광 내부에서 확인되는 회백색 니질점토를 부지불식간에 목관이 부식되면서 변화한 것으로 상정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이는 목관의 외면을 회백색 니질점토 도장하여 밀봉한 결과라 추정하였다. 관하반부를 위해 미리 점토상에 도포해 둔 것으로 추정한다.

소나무류로 확인되었다.

구유형관의 동쪽 끝 棺材에 맞닿아 확인된 점에서 일견 목관의 동단부 마감재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보고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적한 다호리 유적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보고자가 유사한 사례로 든 다호리 15호묘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보고자가 이중격벽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유형관의 상부구조 즉, 목관의 덮는 구조물의 형태를 추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호리 15호 무덤은 목관 관재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도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과연 이 무덤의 동단벽에서도 양지리 1호묘와 유사한 관재들이 확인된다. 묘방의 동쪽 끝에 판상철기<도면5-㉔>가 확인되었는데 ㉔와 유사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목관 바닥 관재의 동쪽 끝에서 8.5cm 들어온 지점 잔존길이 43cm의 관재<도면5-㉕>가 확인되었는데 목관 아래 바닥에서 10cm정도 깊이까지 박혀있었다고 한다. 다호리 유적 정식 보고에서는 이를 썩기로 판단하고 통나무관을 결합했던 장구였을 것으로 보았다(국립중앙박물관 2012:144).

우선, 이중 격벽 중 바깥쪽으로 인식하는 ㉔와 ㉕의 잔존상태가 공교롭게도 관의 동측 전부를 막고 있지 않고 남쪽으로 치우친 쪽에 잔존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다호리 11호에서도 희미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다호리 유적의 자료는 도굴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세 사례 모두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깥 격벽으로 추정된 목재들이 모두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일부만 남았던 셈인데 기타 부재 유기물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우연은 확률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에서 애초에 동단벽 전체를 막았던 관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안쪽 격벽으로 추정된 부위가 마감재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호리 15호의 경우 썩기로 추정되었지만, 다호리 1호 통나무관에 사용된 썩기와는 그 형태차이가 크고 양지리 1호 사례를 참고해 보면 썩기가 아니라 동단벽측 마감 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관 아래로 뚫어 박은 것은 구유형관과 단벽 관재의 결합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호리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동단벽측 마감 판은 ㉔와 ㉕이고 ㉔와 ㉕은 별도의 기능을 지닌 흔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추정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㉔와 ㉕이 각각 소나무판, 철기인 점에서 목관 관재로 사용된 상수리 나무와 樹種이 상이한 점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6> 1호 목관묘 棺床

#### 4) 棺蓋와 壙蓋

양지리유적 보고자는 구유형관을 덮은 뚜껑을 너비 30cm 내외의 판재 3매 정도를 장축 방향으로 덮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호리 15호, 가천동 3,4호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본 해석이다. 그런데 가천동 3,4호의 경우 잔존하는 목재흔이 목관의 뚜껑이 아닌 바닥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호리 15호 역시 목관의 바닥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호리 15호는 도굴로 교란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바닥면에 설치된 요갱을 기준으로 동쪽 일부의 목관 바닥면만이 원래의 위치이며 잔존하는 묘광 어깨선에 걸쳐진-일견 뚜껑과 같이 보이는-판재들은 실은 모두 목관 바닥재이며 도굴로 인해 제 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굴갱이 굴광선 내 동쪽 일부를 제외한 범위에서 확인된 점, 묘광 어깨서 걸쳐진 목재들이 요갱의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점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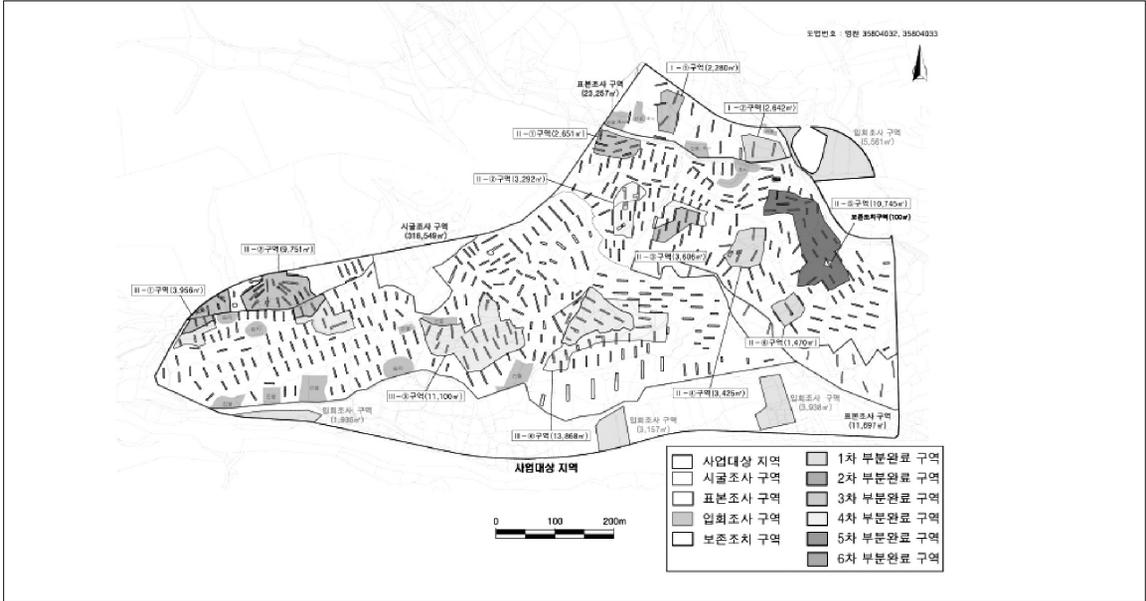
목관하부구조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관과 묘광을 덮은 뚜껑에 관한 추론이 필요하다. 애초 보고에서는 구유형관 위에 판재 수매를 뚜껑으로 덮고 묘광 어깨선에도 목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한 棺蓋의 상정에 참고가 되었던 사례를 재검토해 본 결과,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유구 단면 토층을 보면 묘광 덮개와 구유형관 사이에 관 덮개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유구에서 목관 흔적은 물론이거니와 묘광의 목개 흔적은 명확한데 비해 유독 목관 덮개의 흔적만 찾아볼 수 없다는 해석은 다소 의아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목관 덮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견 조리에 맞지 않는 상정으로 보이지만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배제한다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의 논리적인 추론은 향후 관련 자료의 발견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목관 상면과 목개 사이의 공간은 충전하지 않은 빈공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왕의 연구에서 이 점에 대한 격론이 상당함을 역시 앞서 지적하였다. 각 입장마다의 논리는 있으나 무덤 조성당시 구지표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자치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관묘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U'자상의 함몰 굴곡은 어떤식으로든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일정한 관점이 내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발굴조사에 무덤 조성 당시 구지표면을 파악할 수 있다면 논의의 간극은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와중에 1호 목관묘 단면 토층에서 확인된 'U'자상을 그리는 검은 띠를 이루고 있는 Ⅷ층<도면5>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묘광 바닥면으로 함몰된 띠의 각도가 상당히 급격하고 'U'자상 띠의 최저점에서 잔존하는 구유형관재 상면까지의 높이 차이는 20cm에 불과하다. 이러한 토층 양상은 목관 상부와 묘광 덮개 사이의 공간이 비워져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 2. 유적 내 공간배치 정형-단독묘는 존재했는가?

영남지방에서 늦어도 서기전 2세기 중엽의 시점으로 목관묘'群'의 출현은 지역 단위 정치체의 진화과정의 일 단면을 시사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현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서기전 일천년기 후엽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단독묘



〈도면 7〉 양지리유적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의 존재가 상정되는 지역은 한국식청동기를 반출하는 서남부지방의 무덤인데, 소위 巫의·儀器的 성격이 짙은 화려한 청동유물을 부장한 덕에 피장자의 성격과 당시 사회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반면, 영남지방의 경우 조문경~세문경 단계의 청동유물은 알려진 사례가 드물거니와 그 단계의 무덤은 대부분이 단독묘인 점에서 목관묘群의 출현과는 양자가 반영하고 있는 당시 사회변동양상이 질적으로 상이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와 더불어 영남지방의 목관묘들은 초창기 발견·조사부터 대부분 군집한 양상이 확인된 터라 ‘단독묘’의 존재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양지리유적에 밝혀진 목관묘의 배치양상은 기존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호 목관묘를 포함한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유적의 동쪽에 위치한 II-⑤구역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1호 묘는 2~6호가 군집한 지점에서 100m가량 동남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에서 다른 무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과연 ‘단독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유적 전면을 조사한 것이 아닌 점에서 결정적 단서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굴조사의 트렌치 배치도와 유구 확인 양상을 감안하면 무덤떼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도면7). 즉, 임당동, 신대리 등 경산권역에서 기왕에 확인된 목관묘 분포상의 패턴을 고려하면 II-⑤구역의 남쪽 혹은 서쪽의 어디에선가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터이지만 확인할 수 없다. 시굴조사 범위 동쪽 밖으로 무덤떼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1호묘가 단독묘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인접한 안심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어 그 가능성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각산동 1·2호 목관묘가 그 사례인데 반경 100m 이내에 동단계 무덤이 확인되지 않았다. 1호 무덤과 2호 무덤은 5m 정도 이격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무덤 축조양상은 상당히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상호 미세지형의 기복이 없는 지점에

위치하면서도 1호 무덤은 잔존 깊이 12cm이며 내부에서는 주머니호 1점만이 출토되었다. 반면, 2호 목관묘는 잔존 깊이 128cm에 길이와 폭도 비교적 중형이상이며, 내부에서도 판상철부 6점, 칠초철검 2점을 포함하여 22점의 유물이 확인된 점에서 비교적 후장한 무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남장벽과 북장벽측에 판상철부를 세워놓은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수량은 적지만 양지리 1호 무덤을 연상시키고 있다. 안심지구의 목관묘군은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떼를 지어 분포하고 있다(신서동유적). 이 지점의 목관묘는 와질토기를 반출하지 않고 점토대토기와 철기만 부장한 단계의 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묘역이 확장되는 패턴을 보인다.

영남 중부지방 전체로 시야를 확장한다면 울산 교동리 1호의 사례 역시 단독묘로 보아도 좋을 만큼의 공간배치 정형을 보여준다. 조사의 성격과 범위의 한계는 있지만 어은동, 용전리 사례까지 염두에 둔다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유적에서도 ‘단독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단독묘일 가능성이 높은 무덤들은 그 규모와 부장품 측면에서 질적·양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목관묘 단계 내내 경산권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입당구릉 일대에서는 단독묘를 꼽아 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이대로 당시 모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독묘로 추정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터라 그 가능성만 지적해 두고 그 성격에 관한 구체적 추론은 향후 자료 증가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발간된 양지리유적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1, 2호 목관묘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간 배치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통해 단독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호 적석목관묘는 목개가 묘광 내부에 위치하는 독특한 형태임을 지적하면서 팔달동 유적 등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된 적석목관묘와는 분명한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잔존하는 하부구조로만 판단한다면,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식묘 하부구조와 일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1호 목관묘는 인근지역에서 유례없이 잔존상태가 양호한데다 부장품이 풍부하여 무덤 축조 과정 전반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다. 애초에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심히 작성된 보고문의 해석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운구용 棺의 사용여부, 棺床 개념의 적용, 이른바 목관의 二中隔壁 구조, 목관 덮개의 존부문제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양지리 자료를 기반으로 기왕에 알려진 다른 지역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시각 제시를 시도했지만 지엽적인 문제 제기만 두서없이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본고의 문제제기가 목관묘 구조와 축조양상에 관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키시고 진전된 논의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를 나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자료의 발견만큼이나 정밀한 발굴과 세심한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조사단의 부단한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 참고문헌

- 權志瑛, 2009, 「영남지방 목관묘의 전개양상 검토」, 『考古廣場』5, 釜山考古學硏究會.
- 국립대구박물관, 2020, 『땀대!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2020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시도록.
- 김동숙, 2020, 「3. 경산 양지리 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慶山 陽地埋 遺蹟』, 聖林文化材硏究院.
- 김두철, 2010,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第75輯, 韓國考古學會.
- 김민철, 2019, 「對外交流과 威勢品으로 본 首長層의 出現」,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민철, 2020, 「경산 양지리1호 목관묘 출토 검토회의 특징」, 『땀대! 지배자-새로 찾은 이천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2020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시도록.
- 김용성, 2016,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韓國古代史硏究』82, 한국고대사학회.
- 朴辰一,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진일, 2021, 「점토대토기문화기 오동~서남한 지역 묘제의 전통과 변형」, 『철기문화 수용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신영애, 2016, 「원삼국시대 목관묘」,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 학연문화사.
- 吉井秀夫, 2011, 「원삼국시대·삼국시대 무덤에 쓰인 ‘棺’의 지역성과 변천」, 『考古學論叢』,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기념논총, 경북대학교출판부.
- 金洙南, 1998, 「慶山 林堂遺蹟 木棺墓의 性格에 대하여」,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제3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鄭仁盛, 1998, 「낙동강 유역권의 細形銅劍文化」,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영문연조사연구발표회』9회.
- 朴升圭, 2000, 「大邱·慶北地方의 木棺墓 資料紹介」,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高久健二, 2000, 「樂浪郡と弁·辰韓의 墓制」,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宋桂鉉, 2000, 「辰·弁韓文化의 形成과 變遷」,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嶺南考古學會.
-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第5輯, 韓國古代史學會.
-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第十四輯, pp.28~29, 東國大學校新羅文化硏究所.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博士學位論文.
- 李盛周, 2007,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pp.286~289, 學硏文化社.
- 安在皓, 1995, 「慶州隍城洞墳墓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2, , 東國大學校新羅文化硏究所.
- 이재홍, 2001, 「목관계목관묘의 등장과 배경」, 『嶺南文化財硏究』14, (財)嶺南文化財硏究院.
-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국립중앙박물관.
-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고대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p.103, 嶺南考古學會.
- 이건우, 2009, 「茶戶里遺蹟 發掘의 意義」, 『考古學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紀念 特輯號, pp.8~11, 국립중앙박물관.
- 崔鍾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 『考古學探究』, 創刊號, 考古學探究會.
- 崔鍾圭, 2014, 『鐵箱集 I-葬送-』, 도서출판考古